

Recent Changes and Prospects in the China–Russia–North Korea triangle and the three bilateral relationships

Jae-kwan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n the era of New-Cold War & multipolarity that has been spreading since the outbreak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war in Ukraine. Since the war in Ukraine, changes in the new strategic triangle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have begun to have an unprecedented impact o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two factor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war in Ukraine, have led to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More specifically, the recent changes and prospects of the China-Russia-North Korea triangle and the three bilateral relationships, China-Russia, China-North Korea, and Russia-North Korea. To analyze this research topic, the research design is based on three variables: independent, mediating, and dependent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changes in U.S.-Russia relations. The mediating variables ar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war in Ukraine. On the one h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China relationship led to a strategic competi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Russia relationship led to the war in Ukraine. In additio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can only be influenced by the two mediating variables. In particular, we assume that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of the three major power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ausing the two mediating

* Professor,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jkkim543@chonnam.ac.kr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mediating variables work together to promote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risis. As a result, threats to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have emerg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North Korea-China-Russia triangle, changes in the three bilateral relationships within the triangle, and the confrontation of Northern Triangle versus Southern Triangle. The first mediating variable, strategic competition, has led to several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the quasi-alliance of Sino-Russian relations, the restoration and strengthening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e strengthening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increasing necessity of Sino-Russian-North Korean trilateral cooperation. The second mediating variable, the war in Ukraine,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Sino-Russian relations, re-alignment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the promotion of the US-Japan-ROK triangular alliance, and the emergence of the China-Russia-North Korea triangular cooperation.

Keywords

The China-Russia-North Korea triangle, the U.S.-ROK-Japan triangle, Sino-Russian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Russia relations.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

김재관*

전남대학교

요약

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냉전 다극화 시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가 변화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전례 없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인 중러, 북중, 북러 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이다. 이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디자인을 했다. 즉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이다. 독립변수는 미중관계의 변화와 미러관계의 변화이다. 촉진요인인 매개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한편으로 미중관계의 대립이 전략경쟁을 초래했고, 다른 한편으로 미러관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다. 또한 두 독립변수는 두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미중러 세 강대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두 개의 매개변수를 초래했다고 가정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작용하여 동북아 안보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위협요인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북중러 삼각관계와 그 내부 3개의 양자관계의 변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 대립 등이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전략경쟁이 작동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여러 변화를 초래했다. 즉 중러관계의 준동맹화, 북중관계의 회복 및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강화, 북중러 삼각협력의 필요성 증대 등이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관계의 강화, 북러 관계의 급진전과 재동맹화, 한미일 삼각동맹화 촉진, 북중러 삼각협력의 등장 등이다.

주제어

북중러 삼각관계, 한미일 삼각관계, 중러관계, 북중관계, 북러관계

* 주저자,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이메일: jkkim543@chonnam.ac.kr.

I. 서론: 연구배경과 쟁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근 동북아 안보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북러관계의 급진전이다. 북러 양국 정상은 2023년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강화의 돌파구를 열었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24년 6월 19일 평양회담에서는 북러 간 동맹 복원 조치라 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新조약)에 서명했다. 2000년의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이하 2000조약)을 대체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이 新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제 4조)을 포함해 군사 안보, 기술협력의 제도화는 물론 경제·무역·과학기술·우주·생물·평화적 원자력·인공지능 등 전방위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이고 한미일 삼국에 크나큰 충격과 더불어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이승현, 2024; 장세호 외, 2024; 홍완석, 2024; 김창현, 2024). 이 신조약 체결을 둘러싸고 유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북러 간 동맹 복원의 수준에 가까운 관계 강화로 말미암아 북한은 안보는 물론 전방위 영역에서 특혜와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74년 전 한국전이 패전국 일본의 부흥과 재기를 위한 ‘신의 선물’이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등 관련이 없던 이국 만리의 역외 국가인 북한 체제의 존속과 안전보장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에다 설상가상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는데다 특히 바이든-윤석열 정부 하에서 북미 및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체제의 고립과 경제 난국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설적으로 북한에게 ‘약자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리한 안보 환경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극화’되고 있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한 안보 사안으로 대두되었다(Brands & Gaddis, 2021; Mearsheimer, 2021; 김재관 외, 2022, pp. 38-44; 백준기 외, 2023; 신 & 사토루, 2021).

요컨대 최근 10년 사이 미중 전략경쟁과 미중러 전략적 신삼각관계의 등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북러관계의 동맹 복원화 흐름, 중러 간 준동맹화 연대 강화, 한미일 삼국의 동맹화 추세에 맞선 북중러 연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이 구조적으로 진영화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쟁점과 논란 그리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관련된 선행 연구의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연구가설과의 연관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중관계의 변화야말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삼성은 동아시아 내부에는 3가지 긴장구조, 즉 지정학적 긴장,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으로 인한 긴장, 그리고 역사적 인식의 간극으로 인한 역사심리적인 긴장이라는 이 세 차원의 긴장이 상호 작용해왔다고 주장한다(이삼성, 2023, pp. 39-90). 그런데 이 세 가지 긴장을 완화시킨 결정적 사건은 미중관계 정상화였다. 무엇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약 40여 년간 동아시아 내 3가지 긴장구조는 크게 해소 되어왔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한중수교 등으로 동아시아 내 긴장구조는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사이 중국의 글로벌 대국으로의 부상과 더불어 2018년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시작되자 3가지 긴장구조는 다시금 경직되어 재현되고 있다. 이 미중 전략경쟁은 중러관계를 준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은 남방삼각 對 북방삼각 대립 구조를 확장시키는 주요 매개 변수로도 작용하고 있다. 신상진은 2018년초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의 개시가 경색되었던 북중관계를 급격히 개선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즉 미중관계와 북중관계는 깊은 상호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중관계가 협조적일 때 북중관계는 경색되었다면, 미중관계가 악화하자 북중관계가 급속히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역시 북중관계를 급진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신상진, 2020, pp. 67-95). 즉 북미관계와 북중관계도 역시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러, 북중, 그리고 북러 3개의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북중러 삼각협

력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 즉 미국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이자 글로벌 위협 및 도전세력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이 세력들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화 추진 및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결성 등을 주도해왔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질서의 전환 속에서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말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핵공유 협정’을 체결했고, 2023년 8월 한미일 삼국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즉 ‘협약에 대한 공약’ 선언 (Commitment to Consult)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중러 내부 3개의 양자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북중러 삼각협력의 가능성도 한층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있어왔다(김연철, 2023; 황성우, 2023; 문장렬, 2023). 무엇보다 역외변수로서 미국 요인이 북중러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본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등장하지 않았던 10여년 전만 해도 이 북중러 삼각관계를 체계화나 제도화 수준이 아니라 중러·북중·북러 세 개의 양자관계의 총합으로, 그리고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 양자관계로 보려는 연구가 시론적 차원에서 검토된 바 있다(이정철 외, 2013; 김재관 2013).

셋째, 최근 미러 갈등관계가 동유럽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미러 갈등이 전면적으로 폭발한 우크라이나 위기와 전쟁(2014년~)이 역외 지역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출된 미러 갈등관계는 최근 북러 간 동맹복원을 촉진시켰다는 점에도 우려할 만한 안보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전쟁으로 동북아 국제질서는 자유진영 vs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즉 신냉전 질서로 후퇴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한미일 vs 북중러 군사적 대결의 열점(hot place)으로 전환되면서 안보딜레마는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Sharma, 2023).

넷째, 김연철은 미중 전략경쟁과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이 동맹화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북중러 삼각협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한미일 삼

각동맹화 추세와 연동되어 북중러 삼각협력은 물론 세 개의 양자관계(중러, 북러, 북중관계)들이 10여년 전보다 더욱 더 역동성을 띠면서 제도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 가지 변수인 미중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로 세 개의 양자관계는 선순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향후 한미일 남방삼각 對 북중러 북방삼각으로 진영 대결이 강화되면 북중러 삼각관계가 ‘제한된 형태의 북중러 북방경제권’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김연철, 2023).

다섯째, 미국 내 일부 강경파 그룹들은 최근 북중러 삼각관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을 보유한 이들 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국주의적 삼각 파트너십’(Trilateral Imperialist Partnership)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이 세 세력이 세 전역(theater)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이들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비용과 자원을 동원하여 미래전에 대비하는 새로운 군사역량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삼각협력의 파트너십은 명확한 도전이므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Bennett, 2023 ; Klinger, 2024). 이들은 김연철(2023)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북중러 삼각협력과 양자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중국은 북중러 삼각협력의 제도화와 삼각연대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거부감을 품은 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판단된다(김한권, 2023; 이동규 & 김지연, 2023). 이남주는 3개의 양자관계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굴러가고 있지만, 김연철(2023)이나 문장렬(2023)과 달리 북중러 삼각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중국은 자국이 북중러 삼각협력에 적극 나설 경우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피 완화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중러 삼각관계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한중일 삼자협력을 병립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 사례이다. 이처럼 중국은 한중일 동북아 지역협력을 통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동맹화 추세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이남주, 2024). 요컨대 중국의 경우, 북중러 삼각관계에서도 오히려 양자 관계 중심으

로 중러관계, 북중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북러관계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미중 전략경쟁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은 북러 협력 구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현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과 협력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북중러 소다자협력 체제의 구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장덕준, 2024). 오히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소위 ‘소다자주의’ 외교 전략에 집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진핑 체제 등장 이래 동북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차원의 ‘다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질서’(alternative order)인 ‘다자주의’ 외교를 한층 더 확대 강화하고 있다(Economy, 2024, pp. 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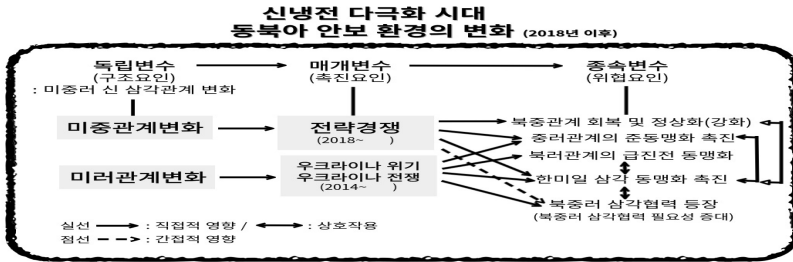
일곱째, 북한은 냉전시대에도 중소 두 강대국을 대상으로 ‘비대칭적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주외교를 펼쳐왔다(김창진, 2019, pp. 61-89). 또한 북한은 탈냉전기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된 ‘신냉전’이라는 ‘기회의 창’을 이용하여 비대칭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을 지가 최근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이종원, 2024; 심영구, 2024; 반길주 & 이종윤, 2024). 요컨대 북한이 냉전 시대에 중소 사이를 오가던 등거리 균형의 ‘세계추외교’를 넘어서서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더욱 확대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정진위, 1985; 순지, 2013, p.117).

여덟째,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의 세계질서는 해체되고 다양한 문명과 발전이 공존하는 역동적 다극질서의 세계가 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3년 10월 ‘발다이’(Valdai) 20차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해체되고 새롭고 역동적인 ‘다극세계’의 신질서가 출현했다”고 역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원칙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밝혔다(제성훈 외, 2023, pp. 51-68; 백준기 외, 2023, pp. 42-52).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가 다극화된 신냉전 질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극체제하 선택적 협력관계를 펼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세계화는 한층 더 퇴조해왔고, 미국은 탈세계화 전략 속에 한층 더 가치·

안보·경제 차원의 블록화된 동맹의 재편과 함께 지역 및 초지역 차원의 네트워크 연대(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진영화 전략이 신냉전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진영화와 대조적으로 브릭스(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 제3 중간지대 국가들의 영향력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다자주의적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제질서는 미중 간 장기전(long game)처럼 여전히 ‘강대국 간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경쟁’(a protracted international rivalry)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념으로써 신냉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Brands & Gaddis, 2021, p. 10).

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전면화하고 있는 다극화 신냉전 체제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문제에 착목하고 있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다변화하고 있는 다중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장기전으로 지속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밀월 관계가 준동맹에 준할 정도로 공고화 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주목하고 있다(김재관, 2020/2021; Kim, 2023, pp. 7-32; 제성훈 외, 2023). 이처럼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신냉전 다극화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동맹화 추세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 강화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중러, 북중, 북러 3개의 양자 관계, 그리고 나아가 북중러 삼각관계가 어떤 변화 속에 전개되고 있는지 착목하려고 한다. 필자의 문제의식과 연구가설을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신냉전 다극화 시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 필자 정리.

이러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책정될 수 있다. 먼저 구조라 할 수 있는 세력의 분포는 다극화 방향으로 미중러 전략적 신삼각관계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개의 독립변수로서 미중관계의 변화와 미러관계의 변화를 주요 구조적 요인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는 매개변수 — 강대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매개변수는 구체적으로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인데, 이 두 요인이 동북아 위기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두 가지 구조적 요인과 두 가지 촉진요인이 작동한 결과 종속변수로서 일련의 동북아 위협요인들을 창출한다는 연구가설을 세웠다.

상론하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수들이 있겠지만 주요 매개 변수들도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된 다극화된 신냉전 신국제질서 하에서 여러 변수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더 구조적인 독립변수는 역시 미중 관계의 변화이다. 이 미중관계는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지대하다. 아울러 이 전략경쟁이 ‘장기전’(A Long Game)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러관계와 북중관계 그리고 북러관계에 어떤 변화와 지속성을 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김재관, 2020/2021; Kim, 2023; Doshi, 2021). 둘째,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의 국내 정치변수들이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지금 가장 큰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전략경쟁은 2024년 말 미국대선에서 누가 집권할 것인가

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Wang et al., 2024). 하지만 두 후보의 대외정책 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 내 주요 이해 당사국인 북•중•러•한•일 5개국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또 하나의 독립변수인 미러관계는 ‘대리전’(proxy war)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충돌하고 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동북아 안보지형을 바꾸고 있는가 역시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넷째,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미일 對 북중러 삼국 사이에서 안보딜레마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보다 안정적인 삼각관계라고 한다면 북중러 삼각관계는 불안정성을 띠면서 형성 중이다. 북중러의 경우, 당분간은 3개의 양자(중러, 북중 및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중러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부실한 삼각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양자관계를 선호하지만 내심 거부감을 드러내는 북중러 삼각협력과 병행해서 한중일 삼자협력도 동시에 유지하려는 투트랙의 동북아 소다자주의 협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중러 못지않게 한중일 삼자협력이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남주, 2024; 김재관, 2022, pp. 77-119). 바이든 정부는 집권 이래 한미일 對 북중러가 대치되는 상황을 조장해왔는데, 이에 동조하여 윤석열 정부 역시 이념 가치 편향의 한미일 일변도 외교를 계속 강화해왔다. 이런 진영화 추세는 미 대선 이후 민주 공화 양당의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수정 없이 지속 강화될 것인가?(Fleitz et al., 2024; Democratic Party, 2024: 이민석, 2024). 다섯째, 무엇보다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급속히 복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삼자협력, 한러관계 및 한중관계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의 여러 가지 구조적 독립변수와 연관된 상황적인 매개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피플들을 분석·진단·예측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구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관점을 병용하여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최근 중러관계의 변화와 평가

1. 중러관계의 지속성 여부 논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서 중러관계는 어떤 변화와 지속성을 보일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관계의 발전과 지속성 여부를 둘러싸고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처럼 부정적 회의론 역시 만만치 않다(Lankov, 2023). 2023년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AHF)이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 동맹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기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중·러 동맹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마크 바신(Mark Bassin)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취약성과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동등한 파트너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Bassin, 2023). 주지하다시피 양국은 탈냉전 이래 최근까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해왔다. 향후 푸틴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준동맹(quasi-alliance)에 가까운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핵심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라시아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Great Game을 펼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유라시아에서 내 지정학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유라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펼쳐왔고, 이에 맞서 러시아 역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대유라시아’(Greater Eurasia) 전략을 펼치고 있어 양국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익 충돌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고작 단기적인 국익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국관계는 ‘비대칭적’이고 깨지지 쉬운 일종의 ‘전략의 축’(axis of convenience) 혹은 ‘전략결혼’(a marriage of convenience)에 가까운 한시적 밀월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Lo, 2008).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패권과 일방주의에 맞서기 위해 일시적인 전략적 협력을 할 뿐이라고 본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러시아의 정체성은 서구편향적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

시아 문화를 경시해왔다는 점에서 중러관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중러관계의 비대칭성 확대와 러시아가 중국의 열위(劣位) 파트너(junior partner)로 전락하는 가운데 러시아 엘리트층이나 인민들은 중국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경계심 혹은 ‘황화론(黃禍論: Yellow Peril)’, 즉 ‘중국위협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역시 중러관계의 비관적 전망을 갖게 한다. 이런 비관적 시각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중러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더 루킨(Alexander Lukin)은 비록 ‘중국위협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양국 협력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밀월관계의 추세를 의도적으로 간과 부정하는 이런 충돌 시나리오야말로 일종의 ‘신화’(myth)에 가깝다고 지적한다(Lukin, 2018, pp. 165-166). 따라서 그의 시각은 사실상의 동맹에 근접하고 있는 중러 밀월 관계라는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상과 같은 회의적인 비관적 시각과 대조적으로 중러관계는 21세기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고, 점차 ‘준동맹’(quasi-alliance), ‘사실상의 동맹’(de facto alliance)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필자도 이런 입장에 가깝다. 이런 중러관계 낙관론은 특히 푸틴-시진핑 집권기 마치 둘의 ‘브로맨스’처럼 더욱 강화되어왔다. ‘한계없는’(No-limits) 중러간 밀착과 전략적 협력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국제관계의 변수들 가운데 하나이다(P. Kim, 2023, pp.94-105). 더욱이 중러는 우크라이나 위기(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이후로도 계속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중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미러관계가 악화될수록 오히려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이래 양국 정상은 최근까지 무려 43차례 이상의 회담을 가져왔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5월 집권 5기 출범 9일만에 중국부터 방문한 이유는 그 만큼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박함을 시사한다.

2. 중러관계의 공고화 및 지속성 유지의 몇 가지 근거

중러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근거로 첫째,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래 경제안보 차원에서 양국은 전방위적 교류를 확대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 따른 대러 제재에 불참하면서 러시아의 장기전 대비와 체제 안정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겨냥한 표적형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 차원의 양국 간 무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1년에 1468억 달러에서 2022년 말에 기록적인 18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3년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401억 달러에 달했다. 2년 새 63.5% 급증했으며, 교역의 90% 가량이 달러가 아니라 루블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최현준, 2024). 최근 2-3년 사이만이 아니라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10여 년 동안 중러무역이 급성장해왔다. 특히 금융 분야와 에너지 분야가 중러 협력에서 두드러진 영역이다. 러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3위 원유생산국이자 2위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에너지 수익이 전체 연방 예산의 45%, 에너지 수출이 자국 총수출에서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에너지 의존형 국가이다. 전쟁 전 2021년 중국은 러시아 원유수출과 LNG 수출에서 각각 31%를 차지했으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튀르키예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 확대하고 있다. 2022년 5월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 되었고 중-러 간 에너지 협력이 확대일로에 있다(박정호 외, 2022, pp. 112-117).

둘째 근거로, 미러 갈등 지속과 미중 전략경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중러 수교 70주년에 즈음하여 2019년에 양국은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천명하였다. 양국은 군사안보 차원에서 이미 2001년에 중러 간 준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한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었고, 매년 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이 조약을 20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양국은 “특수우군관계(特殊友軍關係)”라 할 수 있다(王海運, 2019, p.17).

셋째 근거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경제분야 이외에 기술·인프라·군사안보협력 등 전방위적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 강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중러 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래 서구 자유 진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며 더 확대일로에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봄 집권 3기 출범과 동시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중러 간 전략적 연대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전반적 국제질서

의 추세로 볼 때, 다극화·신냉전의 기본적인 대립축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 전략에 따라 나토(NATO) 동진 확장 전략을 지속하는 한에서, 중러 관계는 ‘준동맹’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작금의 “중러관계 성격은 공식적인 군사동맹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동맹’에 가깝고 오히려 전통적인 동맹관계보다 새로운 시대의 국제질서에 한층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고도로 유연한 준동맹 관계’로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21세기 중러관계는 협력 요인 못지않게 경쟁 갈등 요인들도 병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쟁 및 갈등 요인들은 시진핑-푸틴 집권기에 크게 해소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공동 협력은 한층 더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위협론은 대체로 일부에서 거론될 뿐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협력 요인이 경쟁 및 갈등요인을 압도할 정도로 월등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넷째 근거로, 지도자 요인, 즉 절대권력자인 푸틴과 시진핑의 집권 스타일인 탄력적 권위주의 통치 방식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및 세계관의 동조화(coupling)가 양국의 밀월관계를 촉진시키고 있지 않나 싶다(김재관, 2020/2021). 미국의 길버트 로즈만(Gilbert Rozman)도 아래 6가지 근거와 요인들—유사한 이데올로기 기반, 서구와의 역사관의 차이, 권위주의 정치모델,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국제분쟁에서 공동입장 유지, 국가통합과 정체성 증진—때문에 중러관계는 ‘준동맹(quasi-alliance)’에 가까운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Rozman, 2014).

이상과 같은 배경과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중러 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은 글로벌 신냉전 다극화 시대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및 미러갈등의 지속,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인태 지역 연계 네트워크 협력 강화, 그리고 좁게는 한반도와 대만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와 평가

1. 북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과 변수

주지하다시피 북중관계는 안보·역사·문화·이념적 요인과 북·중의 대내 정치적 요인 외에도 냉전기의 중소분열, 미중수교뿐만 아니라 탈냉전기의 한중수교, 미중 전략경쟁, 최근의 북러관계의 급진전과 같은 일련의 대외환경의 변화가 북·중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이종석, 2000; 최명해, 2009; 순지 2013; 요지, 2014; 선즈화, 2017; 김한권, 2018; 신상진, 2020). 요컨대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네 가지 변수로는 국가안보(특히 미중 및 북미관계), 사회주의 이념, 전통적 연대, 경제관계 등을 꼽을 수 있다(Hoshino & Shunji, 2020, pp. 18-28; 신상진, 2020). 하지만 그 가운데 미중관계야말로 북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4월 김정은 집권과 더불어 2013년 2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미중협조 관계가 유지되자 북중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24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워 지켜야 할 원칙도 서슴없이 쫓 버리고 있다”(『로동신문』, 2013/01/25)고 비판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 미국에 맹목적으로 동조’한다는 서운한 감정도 표시했다(『로동신문』, 2013/02/02; 김연철, 2023, p. 105). 게다가 김정은이 2013년 12월 북중협력 사업 전반을 총괄했던 고모부인 친중파 장성택을 처형함에 따라 시진핑 집권 1기 내내 북중관계는 냉랭했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뒤부터 2016년 한중 간 사드(THAAD)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한중관계에 더 공을 들였다. 그 일례로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한 후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전격 방문한 것이 2014년이 처음일 정도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2017년까지 무려 6년 이상 북중 최고 지도자 간의 상호방문이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북중관계가 얼마나 경색되었는지 반증한다.

이러했던 북중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최초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2018년 벽두부터 남북미 삼국 정상 간에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양자 및 삼자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과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시진핑 주석은 급기야 북미회담 직전인 2018년 5월에 김정은 방중(중국 따렌: 大連)으로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신속히 북중관계를 복원시켰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만 북중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雙暫停: 잠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해법이 남북미중 사이에서 일정 정도 수용됨으로써 한반도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의 9.19 합의 뒤 문 대통령이 존 볼턴(John Robert Bolton)과 같은 미국의 강경파에 밀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비핵화 완성 이후”라고 후퇴한 것과 관련하여 남한의 대미 굴종적 태도를 비난해왔고, 급기야 2019년 2월 하노이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가 결렬되고 난 뒤인 2020년 6월 전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 역시 파탄으로 몰고 갔다.¹⁾ 이런 사태 전개에도 불구하고 2018년 봄 복원된 북중 관계는 윤석열 정부 집권과 더불어 한중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 속에서도 여전히 전방위적인 협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열린 북러 정상회담과 뒤이은 2024년 6월 북러 간에 동맹복원에 가까운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조약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한 추측의 단서로서 첫째, 2024년 6월 북러 간 新 조

1) 북한의 전적인 비핵화를 위한 큰 첫 걸음으로 북한비핵화 보다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시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평양방문 등을 통해 초기에는 북한과 같이 평화협정체결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마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만 매몰된 나머지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 비핵화 이후에 미루자는 발언을 9.19 군사합의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 완성 이후의 일”로 못박아 미 강경파 입장에 동조해버린다. 평화협정 대신 종전선언을 우선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오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적으로 이삼성(2023, p. 81-85).

약협정을 앞둔 시점에서 4년 5개월 동안 중지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5월 27일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공동선언에서 채택되자 바로 그 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를 발사함으로써 중국에 불만을 표출한 점;²⁾ 둘째, 2018년 5월 파렌에서 개최된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을 축하해 두 정상의 산책길에 설치되었던 ‘발자국 동판’을 2024년 5월에 철거한 점; 셋째, 6월 북러 간 新조약체결 이후 중국 당국이 7월 초 중국 내 고용되었던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모두 전격적으로 귀국 조치를 요구한 것에 맞서 북한 역시 자국 내 북중 간 가교 역할을 하던 화교에 대해 거주지 이탈 제한, 북한 주민의 화교가정 출입 단속 등의 통제를 강화한 점, 그리고 평양 시장서 위안화 결제 금지, 북한 주민과 군인을 대상으로 중국영화·드라마 시청 금지 등 (강영진, 2024); 넷째,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 30일 내린 ‘1호 지시’, 즉 주중 북한 공관에 내린 ‘중국 눈치볼 것 없다’는 포치(공지)문을 하달했다는 보도는 북러 간 동맹 복원 조치 전후 무언가 북중 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정영교 & 박현주, 2024). 그러나 이런 추측과 대조적으로 7월 26일 김정은은 정전협정 71주년에 앞서 6.25 참전 중국군을 기념하는 우의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은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 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 대승”라고 발언함으로써 북중혈맹 관계를 재확인했다(허민, 2024).

2. 북한 지도부의 현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북중관계를 이해하려면 양 당국자들의 현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은 다분히 중국과 결을 달리 한다. 2022년 12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국제질서의 변화를 ‘신냉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은

2) 제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546 (검색일: 2024년 7월 10일)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이다. 동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노동신문』, 2021/09/30; 성기영, 2023; 김연철, 2023, p. 122).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핵보유에 더욱 집착하면서 핵무력 정책에 대한 정당화·법제화를 서둘렀다. 즉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질서가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눈에 띄이게 가속화” 되기 때문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만약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2022/09/08; 김연철, 2023, p. 122). 결국 북한은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세 인식은 분명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제성훈 외, 2023; pp. 51-68; 백준기 외, 2023, pp. 42-52). 이처럼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냉전’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지정학적 대립 구도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 편승하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에는 동의하나 ‘신냉전’ 구도가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중 간 대결과 충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중 경쟁을 ‘신냉전’ 성격을 띠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미중 경쟁이 냉전시기의 진영 간 대립이 아니며, 둘째, 양국의 상호이익이 접합 동조화되어 있으며, 셋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 강국의 대 중국 정책이 동일하지 않아 미국을 중심으로 반중 진영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袁鵬, 2020; 신 & 사토루, 2021, pp. 130-131).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신냉전 질서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신냉전 구도 속에 북중러 삼각협력을 강화할 경우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양안관계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평화발전을 원하는 중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좁혀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신냉전 구도야말로 동북아 갈등 지역인 양안관계, 남중국해·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중 대결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중러 삼각협력의 강화 보다는 양자관계에 집중하여 3개의 중러, 북중, 북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한중일 지역소다 자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중 대결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처럼 신냉전 구도는 결코 중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러 삼각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미중관계와 북미관계

북중관계 변화를 진단 분석하려면 이상과 같은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 그리고 러시아 변수들의 영향도 고려해야겠지만, 그 가운데 특히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어왔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신상진, 2020). 그러나 역으로 미중관계가 전면적인 전략경쟁 혹은 갈등이 분출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한다. 즉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이자 ‘전략적 완충지대’(strategic buffer zone)로서 중국의 핵심 카드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으로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의 여지가 확장될 수도 있다. 마치 냉전기에 북한이 중소갈등 대립 국면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계추 외교’로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해왔듯이 말이다.

미중관계가 오바마 집권기와 시진핑 집권 1기(2013-2018년) 까지만 해도 대체로 큰 갈등 없이 협조적이었던 반면, 트럼프 집권 후반기와 맞물린 시진핑 집권 2기(2018-2023)에는 미중관계가 전략경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2017년 12월 미국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을 미국의 패권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즉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소위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초당적 차원에서 ‘존재론적 위협’이 된 중국의 부상을 억지시키는 것이 중국과의 전략경

쟁에서 가장 급선무임을 명시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비록 10여 년간의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미중관계가 편의적인 협력관계일 때 북중관계는 냉랭했던 반면, 2018년 미중 관계가 전면적인 전략경쟁으로 악화되자 북중관계는 크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냉랭했던 북중관계를 일시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이 노린 것은 북중 당정군 관계의 완전한 회복,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대응, 북미회담 대응 및 정보 공유, 대북 제재완화 등을 얻고자 했다.

반면 중국 측은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를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이해했다. 즉 사드 배치를 한미군사동맹의 범위가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보인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북중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핵문제의 접근법 역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요컨대 사드 배치가 북중관계와 한중관계 변화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말부터 미중간 전면적인 전략경쟁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중국은 남·북한과 미국을 향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쌍중단’(雙暫停)-‘쌍궤병행’(雙軌並行) 해법을 제기했다(2017년 3월 8일 제12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외신 기자회견).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선별타격을 우려한 나머지 즉각 이해법을 적극 수용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8년 초부터 남북 정상회담, 제1차 북미정상회담(2018.06.12)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삼국의 급격한 관계 전환에서 차이나 소외(China passing)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인식은 북중관계가 전략적 부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야할 전략적 자산으로, 일반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운명공동체 관계로 전환된다. 그리고 북중관계에서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화에 적극 기여, 대북 제재완화, 대북 영향력 확대 쪽으로 급선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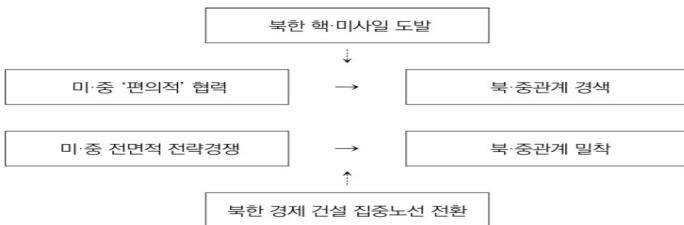
이러한 북중관계의 급진전과 관계 회복은 미중관계의 악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강했다. 즉 2018년초부터 미중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3월 트럼프는 ‘대만여행법’ 서명,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행정명령 서명, 중국 제품에 대

한 25% 고관세 부과(4.3), 남중국해에서 미 루즈벨트와 칼빈슨 2개 항모와 중국의 랴오닝 항모의 대치(4.5-11), 미 상무부의 중국기업 중싱(ZTE)에 대한 제재조치(4.16), 미-대만 간 정부 고위급 인사교류 재개(6.12),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동중국해 진입(6.13), 트럼프의 고관세 부과 승인(6.14) 등으로 미중관계가 급격히 갈등 국면으로 치달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제1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변경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시진핑은 김정은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6.19-20), 북중관계를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하게 협력·협동하는 관계”라고 지칭하면서 북중관계 강화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추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신상진, 2020, pp. 84-85). 이처럼 두 가지 요인, 즉 미중관계의 악화와 북미관계의 급격한 개선이 한동안 경색되었던 북중관계를 신속히 회복시키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중관계의 악화 여부, 즉 갈등 정도가 단기적으로 북중관계의 변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북·미·중 삼자관계를 2018년 이후 시기에 국한해서 보면 미중관계와 북중관계는 역함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중관계가 북중관계 변화에서 핵심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출처> 신상진, “미·중 전면적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국방연구> 2020년 12월 제 63권 제 4호. p. 72.

이와 동시에 북미관계의 변화 역시 북중관계의 전환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2018년 6월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기미를 보이자 냉랭하던 북중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특히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보고,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심이익’의 지역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또한 북한이 한미일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중국 측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결국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동전의 양면처럼 ‘전략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부담’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자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계산을 역이용하여 냉전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북중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재량권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도 북한은 2016년 이래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라도 체제 생존 차원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상황을 악화시켜왔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과 B-1B 전략 폭격기 및 F-35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를 전개하면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확대 강화시켜왔으며 심지어 한국에 사드 배치마저 이뤄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직접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자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결국 중국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부담으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북한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북한이 체제 존속을 위해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북중 및 북미관계에서 독자적인 재량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최근 북러 간 동맹복원 조치는 한층 더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과 재량권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북중관계 변화 요인들 외에도 북한 자체의 노선전환, 즉 핵-경제병진노선으로부터 중국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雙暫停)-쌍궤병행(雙軌並行) 해법을 2018년 적극 수용해 경제발전

집중노선으로의 전환 역시 양국 관계 전환의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종합적으로 미중, 북중, 북미 3개의 양자 관계에서 볼 때, 어떤 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핵심 변수 내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실 구조현실주의 맥락에서 볼 때, G2 국가인 미중 양국이 신냉전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패권국가라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미래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북중관계는 물론이고 중러, 한중, 한러 및 북러관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요인들 가운데 미중관계가 가장 큰 독립변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미러관계 역시 국제질서 변화의 또 하나의 큰 독립 변수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야말로 미러 갈등이 ‘대리전’으로 전면화된 것이다. 매개변수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재동맹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요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중관계에서 전략 경쟁의 개시가 북중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북한 역시 중국의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로 상호작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IV.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와 평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만에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군사동맹 복원 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내 안보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동개입조항까지 포함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서 북러 간 동맹 수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新조약으로 말미암아 작용-반작용이란 각도에서 북러 밀착이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 한미일 삼각 동맹화를 촉진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맞대응 반작용으로 북중러

삼각협력 역시 연동해서 발전할 것인가? 그리하여 동북아 지역 내 남방삼각협력 對 북방삼각협력이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것인가? 등의 의문을 갖게 한다.

1.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의 주요 내용과 그 전략적 함의

2024년 6.19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동맹이란 표현보다는 현대국제관계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이해 당사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를 맺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이다(이승현, 2024).

이번 북러 新 조약은 총 2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북러관계의 전통·현 국제정세에 대한 공통의 이해·발전 지향을 담은 전문과 함께 계약국 쌍방의 의무와 권리, 협력 범위와 대상, 효력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의 국제관계를 다극화된 신냉전 질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이번 조약에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2022년 6월 30일 제10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법률 포럼에서 영상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제 관계는 다극 체제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길윤형, 2022). 특히 미국의 일방주의적 강대국 패권에 맞서 주권과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 이번 6.19 조약을 둘러싼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가입조항의 전략적 함의를 먼저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북러 양국은 1961년에 <朝蘇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제1조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 세

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군사적 원조와 지지를 서로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국가 간 경제적 문화적 협조와 원조를 서로 제공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 기초 아래 실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다(로동신문, 1961.7.7.; 김창현, 2024). 1961년 조약이 1996년에 러시아의 연장 만료조치로 파기된 후 다시 2000년에 <러북 우호·선린·협력조약>으로 대체되었다. 이 2000년 조약은 분명 약화된 탈동맹 성격의 조약이었다. 그런데 2024년 이번 6.19 조약 가운데 특히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제4조, 즉 체약국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타방의 즉각적이고 모든 보유수단을 동원한 군사 원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동개입조항으로서 군사 동맹 복원의 성격이 짙다. 그렇지만 이 자동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문제의 제4조는 이전과 다른 분명한 추가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1961년에는 없던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 법률에 따라 북한에 군사지원을 할 때 반드시 러시아 연방 상·하원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며, 국내법을 근거로 군사원조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 단서 유보 조항 때문에 제4조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자동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1961년 북중 간에 맺은 <中朝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의 제 2조에 비해 그 한계가 뚜렷하다. 북중 조약은 지금도 존속되고 있으며 계속 유효하다. 반면 6.19 新조약의 제 4조 ‘자동개입조항’의 성격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조, 즉 한미 양국은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단서조항과 유사하다(장세호 외, 2024, p. 5). 한미조약은 자동개입조항이 없는 셈이다. 북러조약이나 한미조약 모두 각각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군사동맹의 성격이 희석되는 측면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동개입조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이다. 이 중조(북중)동맹조약 내 핵심조항인 제2조 자동개입조항이야말로 중국에게는 일면 ‘연루’의 위험성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역으로 북한에게는 한미의 군사적 응징을 무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유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항이 한반도의 안정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백지화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달리 보면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조약과 북중조약 두 조약 간 동맹의 영속성 역시 대조적이다. 북중 동맹조약 제7조에는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은 제6조에 따라 조약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1년 후에 중지(終止)시킬 수 있다. 조약 체결 60주년이 되던 때 중국외교부는 2021년 7월 북중 동맹 조약을 20년간 재연장한다고 했기에 2041년에 재연장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6.19 북러 조약 제 23조에서 체약국 일방이 중지하고자 할 때, 그 의사를 타방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약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 중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조약 23조에 근거해 언제든 조약 파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에 조약 종결에 있어 북중 조약보다 북러 조약이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현재 북한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³⁾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냉전시대 이래 지금까지 북한이 가진 지전략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특히 ‘자동개입조항’을 통해 소위 ‘꽃놀이패’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중·러 강대국을 상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한국 정부들이 가령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북러 간 6.19 新조약 내 자동개입조항은 북중조약과 비교했을 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와 과잉대응을 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러시아 역시 무조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을 통해 ‘연루’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도 있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6.19 조약의 의미를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조중동맹 조약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차두현(2024); 나무위키, “조중동맹조약,” <https://namu.wiki/w/%EC%A1%B0%EC%A4%91%EB%8F%99%EB%A7%B9%EC%A1%B0%EC%95%BD> (검색일: 2024. 08.10).

2. 유엔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통한 북러 간 전방위적 차원의 협력의 제도화

북러 간 과학기술, 경제무역, 체육 분야의 협력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미 시작되었다. “9월 진행된 양국 수뇌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됐다” (조선중앙통신, 2023. 11. 16.).

이번 6.19 조약에서 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강조(제16조) 하면서 전방위적 차원에서 양자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파급력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러 양국은 이번 조약에서 첫째, 식량 및 에너지, 둘째, 정보통신기술분야, 셋째, 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 넷째, 무역경제·투자, 다섯째, 우주·생물·평화적 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과학기술분야(10조), 여섯째,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환경보호 및 자연재해 방지 등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포괄적으로 약속했다. 제16조에서 보듯이 유엔대북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전방위적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해나간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신냉전 국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안정 속에 체제 유지와 발전을 할 수 있는 심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의 군사동맹 협력을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3개의 전선, 즉 우크라이나, 중동,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전력을 분산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성동격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하는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김계연, 2024).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한국정부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일 것이고 오히려 핵동결 협상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선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

을 보유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체제 유지와 안정보장에 필수적인 핵억지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는 더 이상 담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의 다각화와 첨단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미 북한은 다양한 핵무기를 소형화, 규격화하여 양산체계로 들어갔다. 게다가 최근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성공해 괌과 오키나와에 주 전력이 몰려있는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 본토를 위협하는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를 실은 3000t급 잠수함, 다양한 순항 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 군사력의 첨단화와 다각화 과정 속에서 이뤄진 북러 밀착 행보는 북러 양국이 동북아 신냉전 체제 하에서 주권과 생존 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세력 균형을 만들어 내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러시아가 현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도·베트남·몽골·남아프리카공화국·우즈베키스탄·아르헨티나 등이다(김창현, 2024). 그러나 이들 중 서로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 매년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중국과도 그런 자동개입 수준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의 6.19 북러조약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군사동맹이 탄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러 밀착과 북한 군사력의 첨단화와 다각화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낳게 한다. 중국은 북러동맹 복원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 삼각협력에 대해서도 러시아보다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V. 결론

북중러 삼각관계는 냉전시기만 해도 중소분열로 말미암아 삼각협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악순환을 겪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특히 21세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북중러 삼각협력의 가능성은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독립변수

두 개는 미중관계의 변화와 미러관계의 변화이다. 최근 미중 갈등은 전략경쟁으로, 미러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이어졌다. 이 두 가지 갈등요인은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촉발하는 매개변수로서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동북아의 위협요인들이 종속변수로서 출현했다. 서론의 그림 1과 본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중러관계의 준동맹화 추세, 북중관계 회복 및 강화, 북러관계의 급진전과 재동맹화 흐름; 한미일 對 북중러 삼국 사이에서 안보딜레마 심화 등은 종속변수로서 가장 큰 위협요인들이다. 이 글은 한미일 동맹화 추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중러, 북중, 북러 3개의 양자관계, 그리고 나아가 북중러 삼각관계가 최근 어떤 변화 속에 전개되고 있는지 집중 분석 진단했고, 한반도에 미치는 지정학적 함의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우선 최근 북러 동맹화 밀착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쟁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 측 기대와 이 전쟁을 ‘기회의 창’으로 활용해 체제안정을 기하려는 북한의 기대, 즉 북러 간 서로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결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전쟁 종식 이후 약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북러 밀착을 국내 안보전문가들이 특히 新조약 제3조(위기 시 쌍방협약)과 4조(자동개입조항), 8조(군사원조) 때문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하나, 제4조에도 국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따라서 신조약은 아직 한미일 삼각동맹화를 확대 추진할 정도로 당장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미 공화당 집권이 상당히 큰 변수이기도 하다.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북중러 삼각체제를 형성 강화하기 보다 기본적으로 3개의 양자관계인 ‘중러’, ‘북중’, ‘북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병행 관리하면서 동북아 지역 내 안정과 평화 속에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다그쳐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 때와는 달리 지금은 이 세 개의 양자관계가 선순환할 가능성이 크다. 북중러 삼각협조관계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이 삼각관계가 견고한 내구성을 갖춘 삼각 파트너십 혹은 제도화 심지어 동맹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상호 호혜적인 양자관계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Klinger, 2024; 이동규 & 김지연, 2023; 최원기, 2024; 노민호, 2023).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삼국 가운데 중국 측이 북중러 삼각연대 나아가 삼국동맹화 추진에 가장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북중러 삼각연대 형성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와 근거로는 요컨대 “첫째, 중국의 북중러 연대 참여는 중국이 그동안 탈냉전·비동맹외교·평화발전 외교노선을 표방해 온 것과 배치되며, 무엇보다 특히 바이든 집권 이래 미국이 동맹 강화와 진영화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온 중국 입장과는 배치된다. 둘째, 북중러 3각 연대 형성이 오히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안보우려감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북중러 연대 형성은 미중전략경쟁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완화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외교’(負責任的大國外交)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를 제고 확산시키는 노력과도 이반되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및 러시아와의 연대 형성은 국제사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초래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동규 & 김지연, 2023; 이남주, 2024).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에 비춰 볼 때, 중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이 동맹화 수준으로 간다 할지라도 북중러 삼각협력체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근거는 남방삼각 대 북방삼각 대립구도는 평화와 안정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사안들이라 할 수 있는 동중국해·남중국해·양안충돌·한반도 급변사태 등과 갈등 사안들이 충돌한다면, 미중 관계 역시 악화되어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의 출현을 앞당길 것이다. 무엇보다 양안관계와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된다면,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두 개 위기 사안은 중국의 핵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넷째, 동시에 중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이 전방위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이를 상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미일과 한중일은 배치되지 않고 병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북중러 협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024년 5월 제 9차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가 4년만에 재개된 것도 이러한 한중일 삼국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위기 사안이 발생하여 북중러 협력이 확대 강화된다면 한미일과 한중일은 병진되기 힘들 것이다.

다섯째, 최근 북러 관계의 동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북중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 지속될 것인가? 중국이 북러 간 신동맹화 추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존재가치를 ‘전략적 부담’(strategic burden)보다는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기에 북러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일부 언론들이 마치 북러관계와 북중관계를 상충 및 갈등관계로 예측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 섞인 판단이다. 왜냐하면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신형대국관계는 중러관계이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러 밀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비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 중러 정상은 사전 이해와 공감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5월 중러 정상이 먼저 만나고 난 뒤, 바로 한 달 뒤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신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사전에 중러 정상 간에 논의를 안 했을 리 만무하다.

여섯째,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된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종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북중 및 북러관계를 추동해나가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신냉전 체제 하에서 약자인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전력상 비대칭적인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어 ‘등거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중·러를 상대로 군사안보·정치·사회·경제·과학기술 등 전방위적 차원에서 빅딜과 ‘시소 게임’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외교적 역동성을 펼치고 있다. 2023년 7월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 때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해

상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것만 봐도 러시아가 얼마나 북중러 협력이 절실한지 알 수 있다(장덕준, 2024).

동북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재 남북관계가 문 정부 때와 대조적으로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러 적대적 두 국가로 변해버린 상황이다. 미·중·러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국인 한국은 가치외교를 떠나 전략적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외교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외친 ‘8·15 자유통일 독트린’은 ‘평화통일 독트린’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가 체제 간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핵 전쟁을 막고 공동번영하려면 ‘평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전쟁 아닌 ‘평화’가 밥이요 경제이다. ‘자유담론’은 북을 겨냥한 외교 용어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담론일 뿐이다.

참고문헌

- 가와시마 신 & 모리 사토루 저, 이용빈 역. (2021). *미중 신냉전? 코로나 19 이후의 국제관계*. 서울: 한울출판사.
- 고미 요지. (2014). *북한과 중국*. 파주: 한울.
- 김재관, 문익중, 박상남, 신종호 & 최필수. (2022). *미중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51문답*. 서울: 차이나하우스.
-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저, 이춘근 역. (2021). *The Great Delusion: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서울: 김앤길북스.
- 박정호, 강부균, 현승수 & 제성훈. (2022). *마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선즈화. (2017).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서울: 선인.
- 순지 히라이와 저, 이종국 역. (2013). *북한 중국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선인.
- 이삼성. (2023).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서울: 한울출판사.
- 이정철, 백준기, 김재관 & 이남주. (2013).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 제성훈, 박정호, 박상남, 김재관, 공민석, 조형진, 윤성욱 & 현승수.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공저).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정진위.(1985). *북방3각관계: 북한의 대 중소관계를 중심으로*. 법문사.
- 최명해. (2009). *중국북한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 김연철. (2023).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의 양자관계의 역동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 39권 제 4호.
- 김재관. 2013. 21세기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북중러 삼각관계에 대한 영향 고찰. *동북아연구* 제 28권 2호.
- 김재관. (2020/2021) . 시진핑-푸틴 집권기 중러관계의 신추세에 관한 연구: 경제 및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44권 4호.
- 김창진. (2019). 냉전시기 소련-북한의 비대칭 동맹과 북한의 자주외교, *슬라브연구*. 35권 4호.
- 김한권. (2018). 미·중 사이 북한의 외교와 중국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5.

- 김한권. (202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전망: 북·중·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29.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백준기, 김재관, 차태서, 정주영 & 제성훈. (2023). *신냉전담론: 현실과 허구 사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연례 학술회의.
- 신상진. (2020). 미·중 전면적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국방연구*. 12월 제 63권 제 4호.
- 이남주. (2024). 동북아 신냉전과 한중일 정상회담, *성균 차이나 브리프* 07. 01. Vol. 72.
- 이동규 & 김지연. (2023).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이슈브리프* 2023-29호. 아산정책연구원. 12.20.
- 장덕준. (2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중러 관계. *외교* 제 148호 (2024.1).
- 장세호 외. (2024).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 국제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 보고* June. No. 275.
- 차두현. (2024).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19.
- 황성우. (2023).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슬라브학보*. 제 38권 제 4호.
- 강명구. (2024). 트럼프 2.0...한반도에 밀려 올 거센 파도. *오마이뉴스*. 07.22.
- 강영진. (2024). 북한, 처음으로 중국 영화·드라마도 시청 금지 지시. *뉴스스* 08. 29.
- 김창현. (2024). 화들짝 놀란 한미 정상, 북러 협정에 뭐가 들었길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군사동맹의 탄생. *오마이뉴스* 7월 15일.
- 길운형. (2022). 푸틴, 미국 ‘일극체제’ 깨뜨리는 “다극체제화는 불가역적 과정. *한겨레신문*. 6월 30일.
- 노민호. (2023). 중·러·북, 내년에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 차두현 아산연구원 "한미일과의 대립 구도 뚜렷해질 것," *뉴스 1*. 12.21.
- 문장렬. (2023). 북·중·러가 노리는 다극화...신냉전 돌파구는 있다. *한겨레*. 9월 23일.

- 만길주 & 이종윤. (2024). 북러 밀착, 북중 소원?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자율성 관측. *파이낸셜 뉴스* 07.11.
- 성기영. (2023). 열병식 외교 의미와 향후 전망. 이슈브리프. 455호 08.08.
- 심영구. (2024). 북한, 진짜 중국 배신했나...무력 충돌 시 러시아 '자동군사개입' 부활의 진실. *SBS*. 07.15.
- 이민석. (2024). 美민주, 공화 모두 당 강령서 '北비핵화' 삭제했다. *조선일보* 08.20.
- 이별찬. (2023). 러시아의 답례...중국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줬다. 중국, 165년 만에 항구 쓰게 돼. *조선일보* 05.16,
- 이승현. (2024). 北,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발표. *통일뉴스* 06. 20.
- 이종원. (2024). 中, 北에 잔인한 통보...예사롭지 않은 상황. *YTN*. 07.15.
- 정영교, 박현주. (2024). 김정은 "中 눈치 보지 말라"...푸틴 만난 뒤 외교관에 1호 지시. *중앙일보* 07. 31.
- 최원기. (2024). 미중진영대결과 지정학적 중간국. *파이낸셜뉴스* 07.25.
- 최현준. (2024). 푸틴이 중국에 간 이유...미·유럽 제재 '틈새' 중·러 무역 2년 새 63% ↑, *한겨레*. 05. 16.
- 최현준. (2024). '미국과 패권 경쟁' '우크라 전쟁 지원'...중·러 끈끈함의 이면. *한겨레신문*. 05. 16.
- 허민. (2024). 김정은, '우의탑' 현화...“북중 친선 굳건히 계승”. *문화일보*. 07. 27.
- 홍완석. (2024). 러시아 탈아입아와 푸틴의 방북 함의. *RIO (Russia In & Out)* No. 2. 2024.06.
- Gaddis, John Lewis. (2005). *Strategies of Containment :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 Oxford Univ Press.
- Fleitz, Fred ; Keith Kellogg, Michael Waltz, Chad Wolf, Rick Perry, Robert Lighthizer, Robert Wilkie, Morgan Ortagus, Ellie Cohanin, Sam Faddis. (2024).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 America

- First Press. Kindle Edition.
- Lukin, Alexander. (2018). *China and Russia : The New Rapprochement*. Cambridge: Polity Press.
- Lo, Bobo. (2008).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Rozman, Gilbert. (2014). *The Sino-Russian Challenge to the World Order: National Identities, Bilateral Relations, and East versus West in the 2010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ssin, Mark. (2023). From Russia-Eurasia to Greater Eurasia: The Evolution of a Geopolitical Imaginary. *NAHF Forum: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
- Bennett, Bruce W. (2023).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The Developing Trilateral Imperialist Partnership. Sep 13, 2023. <https://www.rand.org/pubs/commentary/2023/09/north-korea-russia-and-china-the-developing-trilateral.html>; (검색일: 2024. 08.13).
- Brands, Hal & Gaddis, John Lewis. (2021). “The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100(6).
- Economy, Elizabeth. (2024). China's Alternative Order: And What America Should Learn from It. *Foreign Affairs* 103 (3).
- Hoshino, Masahiro & Shunji Hiraiwa. (2020). Four Factors i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China-North Korea: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under Xi Jinping and Kim Jong-un.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9(1).
- Kim, Jae-kwan. (2023). An Inquiry into Dynamics of Global Power Politics in the changing world order after the war in Ukraine. *Analyses & Alternatives* 2023-7(3).
- Klinger, Bruce. (2024). The China-Russia-North Korea Partnership: A Triple Threat That Can't Be Ignored. *The Heritage Foundation*, Mar 18, <https://www.heritage.org/global-politics/commentary/the-china-russia-north-korea-partnership-triple-threat-cant-be-ignored>; (검색일: 2024.07.15.).

- Lankov, Andrei. (2023). China-Russia Relations in the New Cold War Era. *NAHF Forum: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
- Mastro, Oriana Skylar. (2024). The Next Tripartite Pac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s New Team Is Not Built to Last. February 19,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next-tripartite-pact>; (검색일: 2024.07.15.).
- Mearsheimer, John J. (2021). The Inevitable Rivalry. *Foreign Affairs*, 100(6).
- Patricia Kim, M. (2023). The Limits of the No-Limits Partnership: China and Russia Can't Be Split, but They Can Be Thwarted. *Foreign Affairs* 102(2).
- Rozman, Gilbert. (2014) Asia for the Asians Why Chinese-Russian Friendship Is Here To Stay. *Foreign Affairs*, October 29.
- Sharma, Abhishek. (2023). The Growing China-North Korea-Russia Axis and South Korea's Response. *Diplomat*, 2023.10.06., <https://thediplomat.com/2023/10/the-growing-china-north-korea-russia-axis-and-south-koreas-response>.(검색일: 2024년 7월 10일)
- 王海运. (2019). 中俄关系 70 年 : 回顾与展望. *俄罗斯学刊*. 2019 年 第4 期.
- 袁鹏. (2020). 新冠疫情與百年變局. *現代國際關係*, 第 5 期,